

## 내신 : 현황과 문제 진단



백 운 수

연세대학교 입학관리처장  
ysbaek@yonsei.ac.kr

약력 :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교수  
서울지역 대학 입학관련 처장 협의회 회장  
한국 소음진동 공학회 총무이사  
전 연세대학교 입학정책 차장  
전 서울지역 창업보육센터 협의회 회장

지난 9월 교육인적자원부는 2008학년도 대학 입시 초안을 발표한 이후 수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 최근에 확정지었다. 그 과정에서 고교등급제 등의 대학교 입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더불어 고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제기되었다. 이번 2008학년도 대학입시안은 2005학년도 입시에서부터 적용되고 있는 제 7차 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수정 보완되는 입시제도로서,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대학입장에서 보면 공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각 대학의 설립목적과 특성에 따라 원하는 우수한 인재를 주어진 정보로부터 짧은 입시일정 안에서 어떻게 선발해 내는가에 있다. 입시에서 학생들이 제출하는 서류들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영역, 비교과영역, 자기소개서, 추천서, 수상 경력 또는 자격증 등의 기타서류 등이다. 또한 수학능력시험과 논술 및 면접시험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수학능력시험은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시

험으로서 수학능력에 대한 전국적 상대평가가 이루어지고 각 대학의 논술 및 면접시험은 해당대학의 특성에 따라 형식이 다소 차이가 나지만 각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들 간의 상대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들은 일회성으로서 그 날의 수험생의 상태나 문제의 난이도 및 경향에 따라 다소간의 오차를 수반할 수도 있기에 완벽하게 수험생들의 능력을 측정하기에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러한 입시제도 하에서 보면 대학교 입학 전 고등학교에서의 기록을 담은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제출된 서류들은 그 수험생들을 장기간에 걸쳐 평가한 결과로서 매우 중요한 정보이며 그에 대한 입시에서의 비중도 마땅히 커져야 한다. 그 중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상의 교과영역(내신 성적)은 각 고등학교별로 교과목에 대한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게 되는데 평가 방식은 절대평가 개념의 평어(수, 우, 미, 양, 가)와 상대평가 개념의 석차백분위의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제공됨으로써 제도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완벽한 틀을 갖

추고 있다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비중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경우에는 매우 높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높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에 대한 신뢰성과 둘째는 고등학교 특성에 따른 고교 간의 학력차이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해결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이들 조건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자세히 보기로 하자.

## 1. 고등학교 내신 성적에 대한 신뢰도 문제

200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게 되는데 제7차 교육과정 도입의 취지는 학생들에게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고 인문계와 자연계를 구분하지 말고 학생들이 이수한 과목단위 수에 따라 그 학생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고등학교의 과목별 교원 확보 문제 및 과목 간 불균형 등의 문제로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줄 수 없는 상태이지만 일부과목은 선택교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난 제6차 교육과정의 일부 변형된 형식으로서 무늬만 제7차 교육과정인 형식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아래 내신 성적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과 신뢰성의 문제점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한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서 내신 성적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교과목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진 제7차

교육과정 도입 후, 어려운 교과목의 경우에는 그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적어 내신 성적 산출 시에 일반적인 석차백분위를 활용할 경우 분모에 들어가는 수강학생수가 다른 과목에 비해 작은 숫자가 들어감으로 인해 같은 1등이라 하여도 백분위 점수 상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예를 들면 20명과 100명이 들은 각 과목에서의 1등은 전자는 상위 5%로 후자는 상위 1%로 성적평가가 됨으로써, 전자의 학생의 경우, 우수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고등학교 교과목간의 수강인원 차이 및 학교 간 정원차이나 같은 학교라도 교과목 운영 방식(자연계열 또는 인문계열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고등학교가 다수임.)에 따라 이런 영향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쉬운 과목들을 선택한 경우에는 과목내용이 쉽고 많은 학생들이 수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점수상의 상대적 유리함 때문에 교과목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의 확보보다는 편중된 지식을 습득할 우려가 있고, 어려운 과목들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는 달리 오로지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한 비교육적 교과목 선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대학들의 내신 성적 산출 시에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고등학교 교과목들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유형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두 번째 문제로는 내신 성적의 부풀리기 문제로서 수년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다. 고등학교의 일부 선생님들은 대학의 입시제도가 내신 부풀리기를 부추겼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

만, 이에 대학입장에서 동의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실제로 각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데 있어 변별력 없는 내신 성적은 별 의미가 없기에 내신 부풀리기를 권장해야 할 그 어떤 동기도 없을뿐더러 고등학교는 대학이 설사 어떠한 입시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게 높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공정하고 변별력이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수행 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도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내신 성적 부풀리기는 모든 고등학교 또는 모든 교과목들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일부의 성적 부풀리기 현상은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되기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수년전부터 제기 되었던 이 문제가 최근의 연세대학교 2005학년도 수시1학기 전형에서 서울캠퍼스의 393명 모집에 지원한 4595명의 학생들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위험수위를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고 판단된다.

연세대학교 2005학년도 수시1학기에 지원한 학생들의 내신 성적으로부터 집계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신 성적 부풀리기의 한 단면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내신의 부풀리기는 평어의 경우가 석차백분위의 경우보다도 더욱 심각하다. 과목별 평어비율인 표.1.에서 보여주듯이 지원자

표.1.수시1학기 지원자 과목별 평어비율

평어	과목수	백분율
수	180,834	84.3
우	28,199	13.1
미	4,087	1.9
양	933	0.4
가	483	0.2

들이 수강한 과목 중 84.3%가 수를 받았고 약 97%가 수 또는 우를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2.수시1학기 지원자 전과목 '수'의 비율분포

구분	인원수	분율
전과목 100% 수	743	16.2
90% 이상 수	2,336	50.8
80% 이상 수	978	21.3
70% 이상 수	300	6.5
60% 이상 수	112	2.4
50% 이상 수	61	1.3
40% 이상 수	24	0.5
30% 이상 수	20	0.4
20% 이상 수	13	0.3
10% 이상 수	6	0.1
1% 이상 수	2	0.0
합계	4,595	100.0

표.2.는 지원자 중 743명이 고교 3년간 이수한 전 과목에서 수를 받은 것으로 이는 모집인원 393명의 약 1.9배에 해당되고, 3년간 이수한 과목 중 수를 받은 과목 비율이 90% 이상인 인원수가 3079명으로 집계되어 이는 지원자 총 수의 약 67%이고 모집인원의 7.9배에 달한다. 석차백분위의 경우에는 전체 지원자가 수강한 교과목의 약 30%만이 동석차가 없으며, 약 70%는 동석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표.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특정 교과목에서 수강생의 97%가 1등인 경우 및 1등이 최대 243명인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내신 부풀리기는 대학으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로 진행되어야 할 입시평가업무에 매우 커다란 장애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되어서 그에 따라 전부 좋은 성적을 받는 그런 상황이 아

표.3.석차가 1등인 과목의 동석차 현황

연번	교과	과목	평가	석차	동석차	수강 인원	1등비율 (%)
1	과학에 관한 교과	과제연구1	수	1	134	138	97.1
2	과학	생활과학	수	1	225	332	67.8
3	기술가정	정보사회와 컴퓨터	수	1	167	274	60.9
4	한문	한문	수	1	104	190	54.7
5	체육	체육과건강	수	1	191	382	50.0
6	기술가정	정보사회와 컴퓨터	수	1	210	431	48.7
7	음악	음악과생활	수	1	107	223	48.0
8	재량	인간사회와 환경	수	1	185	393	47.1
9	미술	미술	수	1	142	316	44.9
10	음악	음악과생활	수	1	118	263	44.9
11	사회	인간사회와 환경	수	1	148	331	44.7
12	음악	음악	수	1	148	338	43.8
13	체육	체육과건강	수	1	138	320	43.1
14	국어	국어생활	수	1	136	318	42.8
15	기술가정	정보사회와 컴퓨터	수	1	243	617	39.4

나라, 시험문제가 변별력이 없이 쉬운 문제로 구성이 되어 모두가 좋은 성적을 받거나 아니면 사전에 알려진 또는 공지된 참고서의 문제이거나 등, 이런 형태로 평가가 진행되다보면, 자그마한 실수를 하는 경우에는 몹시 나쁜 성적평가를 받게 되므로 학생들은 더 이상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단순반복 암기형식의 학습습관을 갖게 되어 정작 키워야할 사고력의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학생들은 많은 시간을 학업에 투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깊은 사고력을 묻는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되어 총체적인 학력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내신 부풀리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인식전환과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2008 학년도 대학입시 안에 내신

성적 관련 과목별 표준편차가 제공되므로써 내신 부풀리기를 다소나마 방지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성실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학생들은 한눈 팔지 않고 학업에 정진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식이요 그러한 상식이 우리에게 진정한 상식이 될 때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정상화가 되는 것은 자명하다. 일부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내신 부풀리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다수의 경우를 보면서 대학, 고등학교 그리고 학부모들도 이로부터 책임이 없다 할 수가 없다. 우리사회에 만연된 총체적 부실과 도덕불감증 그리고 온정주의가 결국에는 성실히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설자리를 빼앗고 더 나아가 우리 서로가 불신하고 반목하며 부도덕한 인간들을 양산하는 그런 사회로 전락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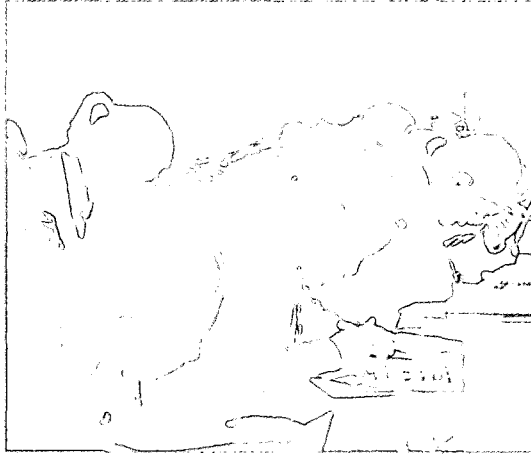
## 2. 고등학교 특성에 따른 고교 간의 학력 차이 문제

각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나 신뢰성에 관한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남아 있는 문제는 고등학교간의 학력차 문제이다. 고등학교들은 교육과정 또는 활동에 따라 여러 고교별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그 유형에는 특목고, 일반고, 실업계고, 자율형 사립고, 대안고 등이 있다. 이들 고교유형별 교과과정이나 활동 등의 고교특성은 매우 차이가 난다. 이중에서도 특목고와 일반고는 대학 진학률이 높은 유형으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2003학년도 연세대학교 정시에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능 성적과 내신 성적상의

상관관계를 과학고군, 외국어고군, 일반고군으로 나누어 통계 분석을 하였다. 정시에 연세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이란 전국적으로 볼 때 수능 성적 상 1등급 또는 2등급 학생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상위그룹 학생들로서 동질의 학생들이라 판단할 수 있지만 이들의 출신고군에 따른 내신

성적의 평균값에 차이가 났는데 과학고군과 외국어고군은 각각 일반고군에 비해 약 35점 그리고 약 24점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대학들이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입시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고교간의 학력 차는 현존하는 실체로서 이를 대학입시에 지원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및 능력을 평가하는데 당연히 반영되어야만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 질수 있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및 합의의 도출에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는 고교평준화 정책이 지난 약 30년의 세월 동안 유지되어 오다보니 평준화란 단어 자체의 개념에 세뇌되어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고교평준화라는 개념자체는 매우 유혹적이고 이상적인 개념인 것은 사실이다. 모든 고등학교가 평준화가 되어 있다면 대학입시제도도 간단해질 수 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유지되어 왔건만 고교평준화는 공허하고 요원한 하나의 목표일 뿐, 실제로 학력이 저하되는 하향평준화로 진행되고 있다. 그 원인은 우선 고교학급의 학습 분



위기에서 유추될 수 있다. 고등학교 입학시에 학생들은 자유의지로 학교를 선택한 것이 아닌 배정방식에 따라 고교진학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학력측면에서 보면 격차가 큰 학생들이 한 학급으로 편성되다 보니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의 경우 어느 수준에 맞추어 가르쳐야 하는지가 매우 어렵게 된다. 쉽게

가르치면 우수한 학생들이 외면하고 어렵게 가르치면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외면하고, 그러한 수준 설정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교육은 단지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외적인 요소도 크게 작용하는데 학생들 스스로가 서로에게 가르치고 자극받으며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학습 분위기도 매우 중요한데 유감스럽게도 학생들 간의 학력차가 심히 존재하다보니 이러한 학습 분위기를 창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고교평준화란 단어는 오래전부터 들어온 단어로 이제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는 다 전국적으로 평준화가 되어있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시에 배정되는 방식을 보면 전국적으로 아직도 비평준화 지역이 존재하여 그 지역에서는 고등학교 진학시 전형에 의해 진학이 결정되며, 그런 지역 중 가장 면적이 큰 지역이 강원도이다. 또한 평준화 지역이라 하더라도 배정방식에 있어서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평준화가 되기 위해서는 평준화 지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그 평준화 지역

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무작위로 배정이 됐을 때 평준화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는 여러 개의 지역 또는 학군으로 나누어진 지역중심으로 배정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8학군에 있는 고등학교들에 대한 학생배정은 그 지역 및 인근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배정해 주는 방식으로 지역에 대한 한계를 넘지 못함으로 인해 오로지 8학군에서만 평준화 개념이 성립하지 다른 학군의 고교와는 평준화 개념이 성립될 수 없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평준화 됐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8학군에 사는 학생이 제주도에 있는 고등학교에 배정되고, 제주도에 사는 학생이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로 배정이 되는 등, 전국적으로 무작위 배정이 될 때 수학적으로 그 배정시점에 평준화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무작위하게 배정된다 하더라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고등학교 배정시점에 평준화가 되었다는 것이지 고교생활 3년 후 졸업시점 즉 대학진학시에도 학생들이 소속한 고등학교의 학력이 평준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배정된 모든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의 능력과 열의가 평준화되어 있을 리는 당치도 않을 뿐더러 교육시설 및 환경과 주변여건도 다 다르고 더욱이 그러한 주어진 여건에서 3년간 학업을 마친 학생들의 학력은 당연히 차이가 나서 해당 고교의 평균학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물론 특정 고교의 평균학력으로 그 고교의 특정학생에 대한 정확한 학력을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확률과 통계의 기법으로 주어진 자료의 한도내에서 오차를 최소화한 가운데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정은 통계적 차원에서 보면 지난 입시 자료들을 바탕으로 볼 때 그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대학 자체적으로 행하는 추정이라는 과정에 오차가 존재함으로 인해 이러한 오차가 수반된 추정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이는 매우 비논리적으로 판단된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측정도구를 이용하여도 항상 오차는 존재하게 마련이며 더욱이 학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추상적 실체를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두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대학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고심 끝에 택한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오차를 수반하게 됨으로 교육부가 진정 오차부분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면 교육부는 이에 대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자료를 대학에 수시로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오차를 보다 더 최소화하여 대학들이 추상적 실체에 더욱 근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내신을 중심으로 대학입시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보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은 문제를 전적으로 공개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대학, 고등학교, 그리고 교육행정당국 및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의 공통된 인식 도출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짚어질 우수한 인재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은 교육부의 몫으로 교육부 스스로가 소신 있는 제도의 개발과 그 위상에 맞게 당당히 추진하기 바라며 공교육의 질적 평가에 대한 연구 및 자료를 제공하여 대학입시를 투명하게 하고 더 나아가 학력이 저하된 고교들에는 정책적 배려를 통해 상향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길만이 지식기반의 정보화 시대로 접어드는 물결 속에 우리나라가 선진국대열로 도약할 수 있는 천 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